

선선한 가을바람... 오색 빛깔 물든 '봉화 자연'으로 떠나볼까...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경북 봉화군을 추천한다. 봉화군은 최근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해 오색 빛깔로 물든 자연의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든 가을 운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봉화의 캠핑장을 소개한다.

관련기사 2면



月刊
정치
의
시립
골
독자들
결으로
!

봉화군 캠핑장... 전국 캠프 마니아들 '입소문'

청량산, 지난해 글램핑 2개동 새로 설치
청옥산, 야영데크 기존 두 배 크기 확장
산타캠핑장, 백두대간 협곡 열차 등 구성



▣ 청량산캠핑장

청량산은 봉화를 대표하는 산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가을에는 전국에서 온 단풍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청량산 입구에는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청량산캠핑장이 있는데 주변이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청량산 캠핑장은 전국 캠프 마니아들이 다시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특히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 캠핑 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린다.

청량산캠핑장은 계절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들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봉화청량산캠핑장은 약 1만4천㎡의 규모에 카라반 7동, 데크 야영 14면, 쇠석 야영 14면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글램핑 2개동을 새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사위장 2개동, 개수대 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개별 주차장 및 전기 공급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야영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무엇보다 어린이 놀이 시설이 캠핑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놀기에 좋다. 캠핑장 곳곳에는 산책길과 함께 벤치가 있어서 계곡 사이로 흐르는 낙동강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근처에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천혜의 비경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길고 높은 곳에 있는 산악형 현수교량인 청량산하

늘다리, 낙동강 래프팅, 미술관 그린가이드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등 다양한 체험 시설과 볼거리가 가득하다.

▣ 청옥산 캠핑장

영주-태백 간 국도변에 위치한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1,276m의 청옥산을 주봉으로 해발 700~900m의 크고 작은 능선이 변화무쌍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80여 종에 달하는 침·활엽수가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춘양목 우량임지가 있어 숲으로는 전국 최고의 휴양림이다.

청옥산과 태백산 일대는 현재 아름답디 낙엽송의 노란색, 소나무의 푸른색, 계곡 단풍나무와 붉나무의 빨간색이 잘 어울려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아름답게 물든 낙엽송 옆에 누워 야영을 즐길 수 있어 휴양과 단풍을 둘다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캠핑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캠핑장계의 5성급 호텔이라고도 불린다.

오토캠핑장 57면을 비롯해 휴양관 1동/13객실, 연립동 1동/3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운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온수가 24시간 제공된다.

대형 텐트를 사용하는 캠핑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야영데크를 기존의 두 배 크기로 확장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데크 간 거리를 넓힌 뒤 주변에 나무를 심어 프라이빗한 캠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매력적인 캠핑 성지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피톤치드로 가득한 청옥산자연휴양림은 야영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1석 2조의 휴양림으로 손꼽힌다.

▣ 협곡 구비마을 산타캠핑장

해발 600m 이상의 태백산맥에 둘러싸인 협곡구비마을 산타캠핑장은 소천면 분천리에 자리 잡고 있다.

소천권역 협곡구비마을은 봉화군에서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맑은 물과 울창한 송림,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진 풍경을 곳곳에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산타캠핑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 주변에는 무르익은 단풍과 함께 울긋불긋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캠핑사이트는 A사이트와 B사이트로 나뉘어져 있고, A사이트는 총 19개, B사이트는 총 14개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주변에는 개수대와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산타캠핑장내에는 글램핑장도 있으며 글램핑 객실 내부에는 침구류, 취사도구,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다. 주요 부대시설로는 계곡 물놀이장, 수영장, 펜션, 카페, 매점, 체육시설, 트램펄린 등이 있다.

주변에는 낙동강 트레킹, 분천산타마을, 백두대간 협곡 열차 등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봉화 분천역에 위치한 산타마을과 함께 산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분천역에서 산타마을의 경로도 하고 캠핑도 하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겨울철 동계 장박을 이용할 수 있는 캠핑존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장박 이용객들에게 편리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캠핑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분위기가 좋아 입소문이 나 있다.

전성기 기자



구미시 '도서 인프라' 가시적 성과 '시립중앙도서관' 재도약 준비 한다



도서관 운영 실적 3개 분야 1위
현재 보유 총 장서 약 81만권 규모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상' 받아
중앙도서관 195억 투입 리모델링

구미시는 2023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관당 평균 장서수 139,645권, 평균 방문자수 233,543명, 대출권수 145,839권을 기록하며 경북 도내 도서관 운영 실적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재 구미시 도서관 총 장서는 약 81만 권에 달하며, 이는 구미시가 추진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과 도서관 시설 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구미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축제와 지역서점 인증제 등을 통해 지난 2월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제56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산동도서관, 첨단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개관한 산동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AI와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형 도서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연면적 3,149㎡ 규모의 산동도서관은 미디어월과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로봇 '산이'와 '동이'가 방문객의 도서 검색과 안내를 돕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VR·AR 체험 공간과 영어 자료실의 학습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시민과 함께해온 30년 역사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역시 변화를 준비 중이다. 이 도서관은 도심 속에 위치한 공원 속 도서관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9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멀티액티비티 공간, 유아·어린이 자료실, 북카페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 구미독서문화축제, 지역작가 지역서점과 함께 독서문화 향유

시설 확장 외에도, 구미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

양한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그중 제3회 구미독서문화축제는 지난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저명한 작가들의 북토크, 독립출판 북페어, 책 문화 체험 부스, 버스킹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시는 책이 문화적 자원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대외협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기능 확장

구미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독서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폴리텍구미캠퍼스와 협약을 맺어 신간 도서를 비치하고, 구미소방서와 MOU를 체결해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는 선생님' 사업을 시작해 청년 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서관은 시민의 성장을 돕고,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미시립도서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달빛동맹 청년 이노베이터 챌린지 시상

제1회 달빛동맹 청년 이노베이터 챌린지가 계명대 주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상생 협력의 상징인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두 지역 대학

생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대구시와 광주시의 산업적 강점을 살린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챌린지에는 계명대, 대구보건대, 전남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등 총 5개 대학에서 선발된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구와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결합한 상생의 창업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황태용 기자



道 낙후지역 발전... '新전략' 찾는다

지속적 인구 감소·경제 침체 대응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 설명회 12월까지 평가 후 정책 추진 등 "공모사업 연계해 시너지 노력"

경상북도는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도내 낙후지역 15개 시군 공무원과 용역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2026-2030) 2차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은 장기 지속적 인구 감소,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낙후 지역 15개 시군(문경, 상주, 안동, 영주,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특화된 지역 특성·잠재력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도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라 2017년 최초 수립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의 세부 일정과 저출생 극복, 신혼부부·청년층 주거거점 마련, 수도권 은퇴자 정착 유도 등 새로운 발전 전략과 신규 사업유형을 제시한다.

제1차 계획(2016-2025)의 재원 규모는 기존 2,200억원에서 8,000억원 증액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는 지역소멸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생활인

구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개발 분야 대학교수와 경북연구원, 도출자 출연기관 연구원 등의 자문 결과를 통해 5개 분야 ①저출생 극복·신혼부부 청년 주거거점 마련 등 복지분야 ②개발필수 기반시설 조성 및 활력거점 육성분야 ③농림·수산업분야 ④역사·문화·관광분야 ⑤산업·경제분야) 신규 사업유형과 기존 시설 확충 사업 같은 하드웨어(H/W) 체계에 역량 강화,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S/W) 체계를 더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9월부터 경북연구원과 함께 기존 1차 기본계획(2016-2025)의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해, 더 나은 도비 지원정책과 S/W 지원 제도 등을 발굴해 낙후 지역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착수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 계획(2027-2036) 수립'과도 이를 연계해 정부부처 지역개발 사업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정한다.

올해 12월 시군 사업 신청을 받아, 전문가 자문과 검토,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9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낙후지역발전 2차 기본계획은 시작부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저출생 극복, 신혼부부 청년 주거거점 마련 등 복지 분야와 지역개발에 필수항목인 기반시설 조성 및 활력거점 육성 분야 등 현시대에 맞는 지원 체계와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며,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지역개발사업과 공모사업 등과 모두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열차 안전운행 확보 훈련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5일 1호선 하양연장선 개통 대비와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상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1호선 하양연장선 구간에서 지진 발생으로 하양역 옆 금락변전소 인근 선로에서 열차가 탈선하고 하양역 주차장에 전기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공사는 경산시, 소방, 경찰 등 13개 기관, 단체 등 155명과 장비 20대를 참여시켜, 실제 비상사태에 대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힘썼다. 황태용 기자

대구시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 특·광역시 1위

전국 평균 취업률 비 10% 높아 지속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성과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직업계고 577교의 2024년 2월 졸업자 63,005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병무청 등 유관기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취업 세부정보를 조사한 것이다.

특·광역시도별 취업률을 보면 대구(65.3%), 서울(50.4%), 부산(55.2%), 인천(49.9%), 광주(55.9%), 대전(61.1%), 울산(54.9%) 순으로 대구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평균 취업률 55.3%(전년 대비 0.4%p 감소)보다 10% 높았다.

대구에는 졸업자 3,574명 중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등 2,005명을 제외한 취업희망자 1,569명 중 1,025명이 취업하여 65.3%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대학 등과 지속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교 개편,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운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추진,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및 대구형 현장체험학습,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저마다의 역량을 키워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군위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시작

군위군은 지난달 30일까지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35톤 매입을 완료하고, 11월 5일 군 위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조벼 매입에 들어갔다.

2024년산 건조벼 매입규모는 3,065톤(76,628 포/40kg)으로 12월 6일까지 각 읍·면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을

위하여 매입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 현장에서 품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중만생종 품종 중 일품, 영호진미, 미소진미, 안평 품종에 대한 농가의 재배 선호도를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 및 보급종 공급 가능 품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경 선정 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24년도 매입품종은 일품과 해답살이며, 매입



대구는 중간 정산금으로 4만원(포대/40kg)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박재성 기자

道 출자·출연 기관 청렴도... 역대 최고 점수

외부 제감도 평균 역대 최고 평가 청렴도 향상 전문가 청렴컨설팅 "신뢰받는 청렴 기관 되도록 노력"

경북도가 '2024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내외부 평가가 역대 최고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경북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지난해 청

렴도 평균 점수는 8.78점으로 전년과 같다.

이들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평가가 시작된 2021년 8.42점 → 2022년 8.70점 → 2023년 8.78점 → 2024년 8.78점 등 꾸준히 올라가다 지난해부터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전체 기관의 외부 제감도 평균이 9.83점으로 지난해 9.64점 대비 0.19점 상승한 역대 최고 점수로 나타났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회장 손경관 |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아이코리아 영천시지회, 연탄 500장 기탁

아이코리아 영천시지회는 6일 지역 소외계층의 포근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가구에 연탄 500

장을 직접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숙자 아이코리아 회장은 "매년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온정을 나눠 주기 위해 연탄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우

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동장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는 아이코리아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관심으로 추운 겨울을 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청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 등급' 매년 1조원 규모 차등 배분 사업 2025년까지 총 472억여원 확보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정부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올해는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을 위하여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당초 4단계에서 2단계(우수 8개 시군 / 각 160억 원, 양호 81개 시군 / 각 72억 원)로 개편하여 최고-최저 배분금액 최대 차이(88억 원)를 확대했다.

청도군은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 중심 생활권 정주 환경개선 △Welcome! 웰니스마

트 -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기술로 사랑을 연결 △글로벌 청(淸)-청(靑) 드림스테이 - 청도 따뜻한 환대와 함께하는 청도의 글로벌 커뮤니티 △행복 울(ALL)타리 프로젝트 - 함께 키우고 돌보는 촘촘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4개 사업을 '생활인구의 관계인구화, 관계인구의 정주인구화'라는 흐름 속에 긴밀히 연계하여 투자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김하수 청도군수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청도군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투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투자계획 프레젠테이션(PPT)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단에게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생을 다하여 열매 맺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손잡고 소멸하는 청도를 성장하는 청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농업대전환의 3대 정책과 기금사업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개원 15주년 맞아

100여명 참석 · 유공자 표창 15년 성과 담은 영상 상영

(제)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5일 오후 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술원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 15년의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 상영, 향후 계획을 다짐하는 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홍보영상은 기술원의 성과와 향후 경산시와의 협력 비전을 담아 주목받았으며, 기술원

직원들의 다짐 영상에서는 기술원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기대가 느껴졌다는 평가다.

윤철석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은 "15년간 성장을 이뤄낸 것은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경산시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장은 축사를 통해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지역 경제와 산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IT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산 먹거리 · 음식점 소개 플랫폼 용역 보고회

11월 중순 경산 유튜브 채널 통해 홍보 이벤트 실시 계획

경산시는 5일 경산시청 본관에서 경산의 우수한 먹거리와 음식점을 소개하는 전용 스마트 플랫폼 '식당, 경산을 맛보다' 사업의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식당, 경산을 맛보다' 플랫폼 구축을 맡은 (사)식품외식진흥협회가 진행했

며, 조현일 시장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김여옥), 모범음식점 영업주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스마트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다양한 검색 분류 콘텐츠 시연 △항후 시스템 유지 및 홍보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최근 외식산업의 급변 속에서 경산시는 기존 행정 홈페이지의 먹거리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경산의 맛집과 다양

한 먹거리를 알리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점과 먹거리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중순 경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댓글을 남긴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공공배달앱 연동을 추진하여 플랫폼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성주군, 부모교육 실시

성주군은 지난 5일 오후 6시,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성주군 11개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개최했다. 성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관내 어린이집 학부모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우리 아이를 지키는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아동 성교육 전문가인 구성에 강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구성에 강사는 대한민국의 성교육 전문가이자 푸른아우성 대표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특강을 진행하며 올바른 성치관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도재훈 기자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청송사과축제로 공연

8명 전문 강사와 72명 단원 참여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지난 10월 30일 제 18회 청송사과축제 주무대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의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청송사과축제에서 선보인 것으로, 지역민으로서 축제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다.

단원들은 '가을의 전설'과 '캐리비안의 해적'을 포함한 총 다섯 곡을 연주했으며, 클래식 외에도 대중에게 친숙한 트로트 곡을 연주해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과 배려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윤병문 기자

칠곡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동영상 제작

연세우유 왜관 · 한진mcs 협약 관련 홍보 행사 등서 사용 예정

칠곡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하기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동영상은 삼천2리장, 연세우유 왜관대리점, 한진mcs(주)칠곡지점이 직접 출연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변의 관심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연세우유 왜관대리점과 한진mcs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칠곡군과 상호 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업체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시 군, 주所知 읍면으로 연락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홍보가 필요한 행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Cheongdo. It features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town with mountains, a river, and people. Text includes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하나로!' and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도시, 청도'. Below the illustration are four key points: 1. 영남권의 중심지 (Center of the Yeongnam region) with 1,300,000 annual visitors. 2. 살고 싶은 행복 도시 (Happy city to live in) with child-friendly and senior-friendly environments. 3. 매력적인 고품격 도시 (Attractive high-quality city) with a mix of urban and rural life. 4. 성장하는 상생의 도시 (Growing symbiotic city) with government-led revitalization.

상주 공성인력 대표, 식품 기부 온정

상주시 공성인력 최재승 대표는 지난 11월 5일 돼지고기 600kg(1,200만 원 상당)을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에 기탁된 돼지고기는 공성면 관내 취약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재승 공성인력 대표는 "추워지는 날씨에 소외되기 쉬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온정의 손길 이어지길 바라며, 부족하지만 돼지고기를 드

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유덕 공성면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청년들 같은 취미로 '교류의場' 형성

청년 행복 뉴딜프로젝트 사업 일환 우리동네 클래스 사업 청년들 호응 32개 강좌 330명 선착순 모집해

상주시는 이달부터 청년 행복 뉴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클래스' 사업을 청년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개강하였다. 수강 모집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 폼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육기간은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청년 행복 뉴딜프로젝트'는 경북도 공모 사업으로 상주시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지역 청년들이 배워보고 싶은 것을 행복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취미클래스, 성과공유회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리동네 클래스' 교육과정은 △예술·공예 강좌 11개(미닫이서랍장 만들기, 가족가방 만들기, 핸드크림 만들기 등), △요리 강좌 5개(쿠키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모나카 만들기 등), △힐링 강좌 1개(아로마 체험)로 총 16개 과목의 32개 강좌에 33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청년센터 들락날락 및 지역 내 클래스공방에서 진행된다. 특히 미혼청년들의 교류와 만남기회 제공을



위해 와인인론&시음 클래스를 별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우리동네 클래스'는 2차시 클래스로 구성되어 연속적인 문화·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구

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단편적인 취미 클래스를 넘어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인 성과공유회를 오는 11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고두환 미래정책실장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취미클래스를 기반으로 서로 교류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표고버섯' 디저트 교육

울진군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체 7회차에 걸쳐 우리음식연구회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관에서 '표고버섯을 활용한 디저트상품 개발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주로 반찬재료로 사용되던 표고버섯을 활용하여 정과, 바람떡, 개성주아, 양갱 등 다양한 디저트 상품을 개발하여 표고버섯의 재발견을 이루었다는 교육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강사는 예천군 소재 한식디저트 전문가인 덕유당 덧재한과의 양미순 대표를 초빙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강사가 기본 레시피를 교육한 후 교육생들과 함께 디저트 상품을 개발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아울러 교육 마지막 회차에는 함께 개발한 디저트 상품을 전시 평가는 작은 품평회도 열었다. 품평회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와 교육생,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시식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개선점을 찾아내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같이 "우리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상품을 개발하는 일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울진군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수 기자

구미시, 외국인 투자기업 안정적 정착 집중

외국인 기업 대규모 고용 예상 시 약 40개 외국인 기업 현황

구미시가 지난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4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구미시가 도레이첨단소재와 하이엔케이 등 해외 투자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구미시는 지난해 10월 도레이첨단소재(주)의 구미4공장 탄소섬유 가공식을 비롯해 올해 4월 오스트리아 투자기업 하이엔케이(주) 구미인동

공장 가공식, 10월 도레이첨단소재 구미5공장 IT필름 13-14호기 및 구미1공장 아라미드섬유 2호기 가공식 등 활발한 투자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중국계 반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규모 고용이 예상되는 신설 공장도 계획 중에 있어 향후 구미시의 외국인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구미시에는 도레이첨단소재를 포함해 약 40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 전자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첨단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며 LG, 삼성, 현대기아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구미외국인투자지역은 총 32개 필지에 168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단 4개의 필지만 남아있을 정도로 높은 투자 수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곳에서 3,2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약 2조 1,497억 원의 생산과 10억 4,921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특화단지과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산업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송병주 기자

제17회 문경새재배 전국 바둑대회 개최

올해 여자오픈최강부 신설 동호인들 700여명 넘게 참가



문경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문경새재배 전국 바둑대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7회 문경새재배 전국 바둑대회는 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바둑협회가 주관하며 오픈최강부, 아마최강부, 학생부 등 15개 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바둑을 사랑하는 전국의 바둑 동호인들이 700여 명 넘게 참가하여 자웅을 겨룰 예정이며, 특히 일본, 태국 등 외국 프로기사들이 참가하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잊지 못할 신의 한수를 두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성군, 경북 찾아가는 인구교육 진행

자원봉사 활동가 40여명 대상 인구통계 용어 대한 이해 전달

의성군은 지난 2일의성읍에 위치한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찾아가는 인구교

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인구의 이해, 지역의 이해, 공동체 속 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보드게임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인구에 대한 이해를 깊이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재성 기자

김천 농소유치원, 성금 전달

세상에서 가장 기본 좋은 소리는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5일 오전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로 가을빛 햇살을 가득 머금은 울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썩였다.

이날 농소유치원 원아와 지도교사 등 8명은

직접 울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26만 2천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다문화 정책학교인 농소유치원에서 개최한 '세계 여러나라와 함께하는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원아들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평소 아끼던 장난감과 옷 등을 기꺼이 내놓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이

웃사랑의 마음을 키웠다.

김병하 울곡동장은 "이웃을 위해 뜻깊은 일에 동참해주시는 농소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키워낸 큰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귀하고 따뜻한 마음도 잘 전달하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대한민국 첨단농업의 미래를 키우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농업수도 상주에서 대한민국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스마트한 미래를 선도합니다.

미래 첨단농업의 메카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 창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매년 전문성을 갖춘 청년 농업인을 육성, 지원합니다.

농업 첨단으로 생산성을 높입니다
농업인의 경험과 ICT의 융합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산력 극대화, 노동력 최소화를 실현합니다.

기업 혁신의 길로 선도합니다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 간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상주시
SANGJU CITY

예천 용궁면,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예천군 용궁면은 5일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관내 농촌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궁면 덕계리 쉼터에 농가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와 홍보소통과, 환경관리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직원들은 쉼터 모종 심기를 도우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현실을 몸소 체

험했다.

석윤진 용궁면장은 "고령이나 몸이 불편한 농가 등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민선8기 안동시 '변화·혁신' 전진

서울서 직거래장터 12만명 찾아 54개 농가 단체 64개 부스 준비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유치

민선 8기를 맞은 안동시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큰 시장의 철학과 의지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에서 10월 28일부터 3일간 안동시의 농축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왔니껴 안동장터"가 열렸다. 지역 농축특산물의 유통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 전 세계로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판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시의 새로운 시도였다.

안동시 최초로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직거래장터에서는 안동한우, 안동사과, 안동산약 마, 안동생강, 안동고구마, 안동간고등어와 더불어 백진주쌀, 안동문어 등의 품목을 판매하는

54개 농가단체가 64개 부스에서 고객을 맞았다.

입소문을 타고 인근에서 찾아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장터에는, 3일간 약 12만 명이 몰렸다. 그 결과 행사장에서 약 17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현장 매진의 영향으로, 28일 방송된 흡소광에서 안동시과가 완판을 기록하며 3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25회째를 맞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도 변화의 좋은 예다. 그동안 페스티벌은 탈춤 공연 일원에서 열려 왔으나 구 안동역과 탈춤공원을 아우르는 넓은 공간으로 축제 장소를 과감하게 변화시켰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48만 명이 축제에 다녀가며 새로운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중앙신시장은 큰 변화를 맞았다. 그간 중앙신시장은 장남마다 무질서하게 펼쳐진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교통혼잡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에 대한 우



려도 컸다. 이를 해결하고 체제 전환 전 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동시는 3월 말부터 중앙시장 일원에서 '왔니껴 안동 오일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양한 문화공연과 장보기 행사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왔니껴 안동 오일장'은 개선했던 지 한 달 만에 만족이 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상인과 방문객

이 이용하고 있다.

11월부터 시행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그동안 안동읍, 임하읍으로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을 위한 큰 시장의 공약이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면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끝까지 포

기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였다.

안동시는 오랜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이뤄냈다. 지금까지의 성공을 발판 삼아, "남은 기간 혁신 또 혁신하며 전진하겠다"는 권기창 시장의 더욱 새로워질 안동을 기대해 본다. 송명주 기자

봉화형 '치유산업 발굴 국제 세미나' 개최

치유산업 봉화 뉴빌딩하다 주제 언론사·주민 등 250여명 참석

봉화군은 지난 5~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봉화형 치유산업 발굴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치유산업으로 봉화를 뉴빌딩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방소멸에 대응한 향후 봉화군이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내빈과 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전문가, 언론사,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 속에 개최

됐다.

먼저 정승필 영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의 '봉화군 의료치유로 길을 만들다'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일본 호쿠리코시 후쿠야마시치로 국제관광전략관의 '일본 치유산업 활성화 사례, 전 연합뉴스 김신환 동남아총국장의 '베트남 이해를 통한 봉화형 치유',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의 '봉화군 산림치유가 나아가야 할 방안', 대한지리학회 정성훈 회장의 '지역협력형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치유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봉화군의 치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현재 봉화군의 역점사업인 K-베트남 밸리사업과 연계한 의료치유, 베트남과 연계한 봉

화형 치유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더욱 현실성 있는 주제발표 시간이 됐다.

종합토론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김장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상북도 김택환 기획차장, 비즈윈 조지현 대표, 매일경제 정혁훈 부국장, 한양여자대학교 베어스메튜조슈아 교수, 일-베 경제교류센터 홍만표 수석연구원, 봉화군 우부구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봉화군의 치유산업 확장방안 등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다.

세미나 둘째 날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과 함께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 산림, 농업 치유 자원 등에 체험 및 공유 시간을 가지며

세미나는 마무리됐다.

김재수 스마트치유산업 포럼 이사장은 "봉화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치유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봉화의 치유산업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봉화형 치유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 지향사업 발굴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향교 일원 합동소방훈련

경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은 11월 5일 봉화군 봉성면 봉화향교 인근 산악지대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산불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봉화소방서·봉화군청·영주국유림관리소·의용소방대 등 93명이 참여했고, 산불지휘차·협지펌프차·산불진화차 등 차량 15대가 동원됐다.

특히, 신규 도입된 산불지휘차량을 활용해 현장 지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지휘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산불 초기 선착대 및 의용소방대의 진화 활동·산불 확산에 따른 소방력 동원 및 적절한 배치를 통한 운용능력 향상·방어지역 설정·중단없는 용수공급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천처럼 진행됐다.

119산불특수대응단장(소방정 장해동)은 "이번 합동훈련이 산불 진화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불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양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행사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 운영 건강한 자아 인식 형성 지원

영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학생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영양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오후 5시 반에서 두 시간씩 총 6회 시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기우며 건전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우는 등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맞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건강한 자아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여러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200(여, 14세)은 "평소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장점과 장점을 알아가고 싶어요"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윤동 기자

울릉군, (주)성경식품과 업무 협약 체결

독도 수호 국내·외 홍보 협력 특산물 활용 신제품 개발 목적

울릉군은 5일 울릉군청에서 '지도표 성경김' 포장지의 독도 표기를 고수하며 일본 수출을 포기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주)성경식품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독도에 대한 만·관·국·도·수호의지를 공고히 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독도 수호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울릉도 특산품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육현진 대표이사님의 경영 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울릉군과 성경식품의 상생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울릉도·독도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지도표 성경김의 판매와 제품 홍보를 위한 길을 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육현진 (주)성경식품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포장지를 변경하지 않고 일본 수출을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남한권 울릉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국민분들의 호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안동 '하회선유줄불놀이; 하회야연' 시연 마무리

주최 측 추산 약 2300여명 운집 올해 누적 관람 약 45000여명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하나로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하회선유줄불놀이; 하회야연(河回夜宴)'이 지난 5일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 시연을 끝마쳤다.

2일 저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만송정 숲과 낙동강변 일원에서 열린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하회선유줄불놀이 시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 3천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운집해 관람했다. 올해 누적 관람객은 약 4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번 시연에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공공안전, 교통통제, 행정사무, 행사 안내 등 각 분야에 투입된 인력은 대회 200여 명에 달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강 위에서 시를 짓고 뱃놀이를 즐기는 '선유', 만송정 숲과 부용대를 가로지른 줄에 숯 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여 올리

는 '줄불', 말린 솔가지 묶음에 불을 붙여 부용대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낙화', 바가지 속에 불 붙인 솜을 넣고 강물에 띄내려 보내는 '연화'로 구성되었다.

사람의 정신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조화, 유교적 사대부 문화와 불교의 불을 이용한 정화(淨化) 의식이 융합된 결과인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에 따라 수백년간 이어졌던 전승이 잠시 중단됐다가 해방 이후 여러 지역민과 연구자의 노력 덕에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송명주 기자

영주 알곡어린이집, 식품 기탁

취약계층 위한 라면 25박스 상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영주시 알곡어린이집은 5일, 교사 2명과 원아 15명이 상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25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어린이집 자체 행사였던 알곡밤도깨비야시장에서 열린 아나바다마켓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25박스를 마련해 진행했다. 이날 아이들은 상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 재활용을 위한 우유팩



교환에도 참여했다. 1998년 설립된 공공형 어린이집인 알곡어린이집은 현재 0세반에서 5세반까지 운영되며, 교사 18명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APEC 2025 KOREA  경주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

2024. 11. 8.

금요일 오후 6시

경주시민운동장

관람 PLUS+

관람객 1인당 1000원
1인당 1000원

